

초빙강연

國內·海外建設市場 動向

■ 국내건설시장 동향

1. 사업규모의 감소

최근 수년간 국내 건설업계 사업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70 조원~75 조원이던 국내공사 계약고는 '98년에 47조원으로 감소하고, 해외공사 계약액도 평균 U\$ 80억~100억 하던 것이 '98년에 U\$ 40억으로 감소했다. 건설업이 수주사업인 만큼 계약고의 감소는 바로 매출액의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평균 60조원~65조원 하던 국내공사 매출액은 '98년에 54조원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평균 18조원~20 조원대를 유지하던 주택분양은 '98년에 12.5조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SOC사업 예산은 기 발주사업에 집중되고 신규공사의 발주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사업은 아파트 과다공급, 수도권 난 개발의 후유증, 준 농림지 폐지방침 등으로 인하여 침체 일로에 있다.

한편, '90년 918개이던 일반건설업체는 2000년에는 6,150개(6.7배로 증가)로 증가하고 소위 페이퍼 컴퍼니의 난립으로 인하여 급증한 전문건설회사를 합치면 그 수는 약 37,000개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건설업체 당 평균수주액도 '90년에 287.3억원이던 것이 2000년에는 99억원(△65.5%)으로 감소하였다.

2. 영업효과의 악화

3,607개 국내 건설회사의 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은 '98년 (-)3.1%이며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역시 '98년 (-)3.4%로 계속 악화되었다.

3. 불안한 재무구조

국내 3,607개 건설회사의 재무구조를 보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적자가 확대되는 등 성장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매출원가 구성비 91.2%, 일반관리비와 영업외비용은 각각 6.0%와 13.6%로서 수익성

이 불량함을 알 수 있다. 또 매출채권 회전기간이 평균 106.8일(3.41회)로서 활동성이 낮으며 특히 투자사업의 비중이 큰 대형 건설회사들은 매출채권회전율이 2.0회 미만인 경우가 많다. 매출액대비 금융비용은 평균 7.9%, 이자보상배율은 평균 0.35로서, 자료에 의하면 '97~'99년 47개 상장사 중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이 30개 사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98년 순수 건설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은 14.8%이며 평균 부채비율은 437.7%('99년 605.9%)로서 건설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잠재성 부채(전환사채, 영업채무, 약성미수금, 보증 및 본쟁 등)를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불안함을 알 수 있다. 재무제표상으로 건설업의 유동성은 비교적 우량하게 나타나지만, 사기성, 기성지불시 공제된 선수금과 유보금 등 유사매출을 공제하면 실제 유동성은 감소하고 있다.

4. 극심한 경영 불안

건설업계의 부도발생률은 12.4%로 2000년 10월 현재 시공능력 상위 100대 회사 중 법정관리 17개 사, 화의 12개 사, 워크아웃 8개 사 등 총 37개 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1월 3일 추가로 발표된 29개 법정관리 및 청산 기업 중 11개의 건설업체가 포함되어있어, 대량실업, 하도급 업체의 연쇄부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건설인력 162만 중 실업자가 38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건설업계는 높은 차입금 비중, 금융비용의 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 유동성 악화, 신용도 하락, 주택보증기금의 고갈, 기업부도에 따른 대손 상각비의 급증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불안에 처해있다.

5. 혼란스러운 건설생산 시스템

건설생산 시스템 측면에서의 문제를 살펴보면 건설관련 입찰제도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도입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

韓國 建設業의 當面課題

심옥진 · 전 현대건설 사장

는 실정이며, 경제적이면서 수행구조가 단순하여 그 효과가 입증됨으로써 특히 건설관련사업의 민영화 경향에 비례해 해외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턴키 건설이 한국에서는 그 수행과정에서 야기된 수많은 번거로운 문제점들로 인하여 이제 그 정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하다. 또한 기술개발에 관한 뚜렷한 모델이 없고 국가과학기술정책 역시 정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6. 낮아지는 위상

'90년에 11.4%이던 GDP 대비 건설산업의 비중은 2000년에는 8.8%(△22.9%)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건설업의 주가지수는 종합주가지수 560정도에서 40을 유지함으로써 35개 산업분야 중 34위에 머물고 있다. 건설업은 경영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M&A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거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건설산업 전체를 첨단산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있어 일부 식자들은 건설기술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2000년 11월 1일 대통령은 "건설업이 경제를 주도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고까지 말한 것을 보더라도 건설업의 위상이 크게 실추된 것을 알 수 있다.

■ 해외건설시장 동향

1.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

해외건설의 최근 동향은 건설관련사업의 민영화와 상업주의화로 요약된다. 건설관련 시설물의 민영화와 상업주의 지향은 가격파괴, 절차파괴, 조건파괴를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가격파괴는 영업이익의 확보뿐 아니라 시장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절차파괴와 조건파괴는 엔지니어링, 경영과 관리, 금융조달, 법무 등 분야별로 국제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함으로써 제한된 건설업자만이 해당분야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해외건설시장에서 한국의 건설회사는 기술, 경영과 관리, 금융, 법무 등 전

문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규모의 한계

해외건설시장은 그 규모가 U\$ 130~100bn 정도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에 그 규모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84. U\$ 74.1bn), 진출국의 현지화 노력의 확산, 건설관련 사업의 민영화와 상업주의 경향이 급진전하는 등 한국 기업이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효과를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건설사업에 관하여 건설산업계 전반에 걸친 재고가 필요한 시기이다.

3. 경쟁력의 한계

한국의 해외건설은 선진 경쟁사들 보다 낮은 이익을 전제로, 즉 이익을 희생해서, 수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심한 경우 이익을 모두 포기해도 경쟁사를 물리칠 수 없는 소위 "한계경쟁력"에 달한 분야도 있다. 또한 입찰에 성공하더라도 분쟁과 미결 등으로 인한 청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익실현이 불분명한 사례도 많이 있다.

狀況 分析

■ 함축된 의미

1. 변화와 대응에 무심

'60년대 중반은 절대빈곤의 시대로서 "잘 살아보세"라는 표어가 시대적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70년대 초반은 해외건설의 본격화되었던 시기로, 1차 및 2차 오일쇼크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크게 높아져 해외건설은 효자 역할을 했으며, 해외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진출해 달러와 관련된 특혜로 사세를 확장했고, 건설회사가 대기업 지배구조의 중심 위치(현대, 대우, 동아, 벽산, 삼환, 경남)에 서게 되었다. '82년 해외건설 계약고는 U\$ 13.7bn(10.5%)에 달했으나, 이 후 달러 가치의 급속한 변화로 해외건설 규모가 감소되기 시작하였고, '88

년 해외건설 계약고는 U\$ 1.6bn(1.7%)로 떨어지게 되었다. 반면 '80년대 국내건설은 아파트건설을 필두로 장기 호황에 들어 서게 되었다. '90년대 초반부터는 건설회사들이 국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하면서, 차입은 경영능력으로 인식되게 되었고 차입금이 급증하였다. 결국 '97년 외환위기는 변화의 메시지를 가져다주었고 상업주의, 경제제일주의에서 글로벌 사업여건의 변화, 국가정책의 변화, 금융시스템의 변화, 경영패러다임의 변화, 위상의 변화, 인식과 이해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건설업의 시점별 주요 대응 이슈를 살펴보면, '80년대에는 건설산업이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장기전략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85년도에는 해외건설의 전략적 재검토와 함께 사업지역 및 사업 portfolio, 해외건설을 지원키 위한 안전장치가 만들어졌다. '90년대는 성숙기에 들어선 건설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세워졌으며 '95년에는 국내·해외 건설산업에 관한 전략적 재검토, '97년에는 건설업의 생존전략이 수립되었다.

2. 본질 접근노력 부재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의 본질은 건설업에 관한 정부와 채권 금융기관의 정책 변화, 국가산업정책상의 위상 감소, 금융기관의 대출 portfolio상 건설업 비중 축소의 가능성(지배구조의 변화,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재평가, 건설업의 리스크와 수익성의 한계)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산업구조와 생산시스템의 본질적 문제, 건설업의 경영현실, 건설업 재무구조의 특징, 규모확대와 효과제고 대 최적 portfolio의 관계, 법률구조와 사업관행, global trend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 건설업을 hardware적으로 인식하고 S/W가 H/W에 종속된다는 인식과 이해의 한계 등이 지금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건설업의 3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방식, 건설산업구조와 생산시스템에 관한 제도적

장치 부재, 과도한 관료적 영향 등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무질서한 건설산업구조와 생산시스템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숙한 여건들이 산재해 있다. 글로벌화 적응력 및 잠재력 부족, 미완의 시장경제구조, 천민 자본주의적 인식, 동양적 사회·문화 구조, 산업구조와 생산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조직적 노력 부재, 기업가 정신과 기업문화,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구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불평등한 계약관행, 클레임을 인정치 않는 계약관계,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턴키 입찰제도, 발주자의 ownership 부재, 미숙한 공공시스템, 과도한 관의 간섭, 부담스러운 관변 시스템의 기생,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인 생산시스템 등, 잘못된 사업관행이 건설산업구조와 생산시스템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말았다.

4. 건설경영의 난제들

건설업은 높은 고정비 부담률, 낮은 채권 회전을, 적은 자기자본비율, 높은 사업위험, 낮은 이익률 등 현금흐름의 규모에 반비례하여 대단히 민감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재무영향을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기업 경영혁신의 징후는 재무구조에서 발견되고 혁신의 성과도 재무구조상에서 표현된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업에서 CEO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의 건설업 경영부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투자개발사업(분양, 재개발, 재건축 투자개발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건설업체는 수주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투자개발사업에 적극 진출하였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의 운영을 통한 이윤 창출과 사업비 회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건설단계보다는 계획과 운영단계가 중요하다. 건설단계 역시 철저한 계획과 운영의 목표아래서 진행되어

야 한다. 그러나 건설회사가 자신의 투자로 투자사업에 진출하면 건설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려는 속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건설비가 높아지게 된다. 나아가 투자사업에 관한 마인드와 운영체계가 미숙하여 건설회사가 직접 투자하는 투자개발사업은 실패하기 쉽다. 공급과 수요관계라는 간단한 투자원리를 간과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역시 악성 미수금과 차입금을 증가시켰고 결국 건설회사가 직접 투자하는 무분별한 투자개발사업과 분양사업이 오늘의 채무과다 현상을 증폭시켰다.

한편, 지난 35년간의 해외건설은 그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계약과 익숙하지 않은 사업관행 등으로 인하여 각종 분쟁과 미결이 누적됨으로써 전체적인 영업효과 면에서 성공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한국 건설업에 관한 평판과 신뢰도 역시 그리 높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건설업자에 대한 금융신용도가 하락하여 외국 금융기관이 입찰과 건설수행에 필요한 보증을 기피하거나 고액의 보증 수수료율 또는 복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국내건설업자들은 해외사업에 관해서 관망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기로에 선 한국 건설업

현재 한국의 건설사업은 한 마디로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여건이 변화되고 건설업의 GDP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는가 하면, 건설산업에 관한 국가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건설대출 portfolio가 감소하고 있다. 또 대기업 그룹 내에서의 기여도 역시 반감되고 있는데 대규모 자금 유입 및 자금도입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그룹사들의 신규사업 진출 반감 및 건설수행의 outsourcing 경향, 건설회사가 그룹 지배구조에 주는 부담 등이 그 원인이다.

대기업의 점유율 및 매출 또한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 기존 건설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앞으로 당분간 이

와 같은 추세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장의 감소는 계약고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본격적인 매출감소로 연결될 것이다. 특히 상위 5대 및 10대기업들은 국내건설 발주액의 32%(회사평균 6.4%)와 45%(회사평균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와 같이 과도한 점유율을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장기 투자성 공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잔고의 유효율이 낮고 매출밀도 역시 낮다. 때문에 대기업의 매출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건설 대기업들은 적절한 규모와 적절한 사업 portfolio를 결정해야 하는 다급한 시점에 있다. 그 외의 제약적 요소로는 국내·해외 건설시장 규모의 한계, 국제 경쟁력의 제약, 일반 건설사업의 완전 시장화(complete market), 투자관련 건설사업의 문제점, 민감한 재무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내에서 건설산업의 의미와 가치 및 인식의 변화, 사업규모와 효과의 제한,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 그리고 글로벌 건설시장의 변화 등에 적응하여 한국의 건설업은 경영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6. 국내 상황과 글로벌화

국내적으로는 건설업체 구조조정에 역행되는 사례(허가제도, 법정관리)와, 국가 경제상황 조정정책, 미숙한 정부기능, 역기능적 건설관행(부실, 비리, 담합)사례 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가 기간시설 인프라가 정비단계에 들어서고, 건설업의 위상변화(국가정책, 금융정책), 정부와 지자체 예산 한계, 해외 건설산업의 변화,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등 글로벌화에 따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 국내·해외건설시장의 장래

1. 글로벌화의 지속적 진전

글로벌화가 요구하는 모습은 정보의 투명성, 정책의 신뢰성, 상황의 확실성, 대가

성(high risk high return), 경영체계의 미래가치 등이며, 불확실성은 퇴출을 의미한다. 또한 글로벌 경영자의 역할(decision framing)로는 전략적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지식경영, 신뢰경영, 리스크 관리, e-marketing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영업이익, 신뢰와 평판, 호혜적 협력이라는 효과 지향의 3요소가 필수적이다.

2. 건설 수요측의 변화

건설 수요 측면에서 본 변화의 하나로 글로벌화와 민영화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가격파괴, 절차파괴, 조건파괴, 상업주의 지향, 계약 리스크 확대, reputation 중시(신뢰 respective, 성실 sincere, 신의 faithful), 사업주와 건설업자의 수평적인, 그러나 냉정한 계약관계("same boat but no mercy"), 신 건설수요, 신 사업수행방식, 신 건설방식 등을 요구한다. 또 다른 변화 요인인 사업지역의 광역화와 계열화는 글로벌 라이프 인프라(석유, 가스, 전력, 통신, 물), 글로벌 아웃소싱 등을 의미하며, 사업주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방식(open book, GMP)과 프로젝트 수행방식의 변화, value engineering, 성능과 공기 우선, 품질-안전-환경-투명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3. 건설 공급측의 변화

건설 공급측면에서의 변화로는 제품, 서비스, 정보의 평준화,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한 응용기술의 평준화와 현지 조인트벤처, 차별화(기술, 관리, 경영) 전략에 의한 후발 건설회사의 약진을 들 수 있다. 기술 집약효과 제고, e-construction, 지식경영 등으로 기술난이도에 따른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경영방식, 새로운 사업의 개발로 remodelling, REIT's, land bank, 새로운 영업 방식으로서의 B.O.T., 기획제안형, GMP, 프랜차이즈 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적자본과 기업의 지식의 변화, 소프트웨어 서비스, 글로벌 자원동원, 역동적 경

영시스템(integration, professionalism, academism) 등으로 기업요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화, 건설관리기법, 기술과 자재의 발전으로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 외에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전문 프로젝트의 수행력(계획, 수행, 운영)에 의한 역동적 전문가 사업화, 핵심사업, 신규사업, 미래사업에 대한 전략적 사업개발 등을 변화 요소로 들 수 있다.

4. 경쟁요소의 변화

기업의 경쟁요소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프로젝트 관리능력(project management expertise), 기업의 대외 신뢰도(reputation of the firm), 금융주선 능력(financial packaging capability)은 물론 기업 총괄시스템 속에 내부화된 전문성과 지식, 순수기술보다는 노하우나 경험지식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금융과 자본시장의 변화, 국제표준화, 환경문제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산업요소의 중요도 변화

건설업은 software라는 인식, 즉, engineering, R&D, 건설관리, 금융, 경영 전략, 계약, 법무, 세무 등, H/W가 S/W에 종속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건설업의 구성요소 중에서 과거와 같은 관료적 환경과 학구적 참여의 중요성보다는 역동적 전략, 전문적 수행, 상업적 효과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

韓國 建設業界의 對應

1. 변화적응

이상과 같은 변화에 대한 한국 건설업체의 적응과 대응은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즉, 상황인식체계(TIP)와 상황인식노력, 정보수집, 정보교환, 경쟁, 국내·외 시장동향에 대한 분석,

산업구조와 생산시스템, 기업경영, 재무구조, 위기관리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부터 변화를 신속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 누적 악재, 가속 악화, 자연 회복에 대해 조기경보, 단호한 조치, 혁신적인 변신만이 위기의 진행을 막고 회복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위기경영, 전문경영, 전략경영의 도입이 필요하다.

2. 본질 접근

문제의 해결은 그 본질의 접근에서부터 시작된다. 본질접근의 첫 번째 원칙은 상황의 본질 즉, 건설산업구조와 생산시스템의 본질, 건설경영의 본질, 글로벌 건설시장 변화의 본질, 한국 건설산업의 당면한 문제의 본질 등을 이해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칙은 시스템적 접근, 매트릭스적 접근, 분석적 접근, 배경과 여건 분석, 글로벌적 접근이다. 세 번째 원칙은 전문가 주도, 요소별 및 포괄적 전문가 참여, 실무 상황의 완전한 반영이며, 마지막 원칙은 실천적 방안을 세우고 실무 관련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속수행을 위한 정책반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3. 생존-지속성장의 시나리오

기업이 생존(alive)하고 사업을 지속(sustain)하고 성장(grow)하는 확실한 시나리오는 감량경영(down sizing)으로 생존, 핵심경쟁력 집중과 재무경영으로 지속, 경영패러다임의 혁신, 전략적 사업확대와 신 사업 진출로 성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가 시스템, 다양한 점점관리, 일관된 경영 및 지원체계, 투자개발사업과 해외 건설사업의 전략적 수행이 요구된다.

4. 건설업의 경영 혁신

정도경영이란 지배구조의 정착, 기본에 대한 충실, 핵심사업과 software지향, 경영의 혁신성과 글로벌성, 상업주의, 전문성, 가치창조 등의 포괄적 접근, 규모 확대와 효과 제고를 의미한다. 또 사업의 효과 지향에는 적정 규모와 적정 업종(portfolio)을 지

향하면서 효과지향경영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건설업의 변화를 통한 한국 건설산업의 생존 노력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경영 요소는 건설사업관리능력, 전략경영, 재무경영 등이며 위기관리경영의 신호와 지표는 재무구조, 기술력, 건설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의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이때 전문가적 판단과 수행방식에 근거한 사업확대 및 사업효과 제고, 전략과 정책경영, 기술경쟁력, 관리경쟁력 제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해외건설의 지속을 위해서는 해외건설사업확대와 효과제고 방안, 분쟁해소와 청산 방안, 협력과 경쟁의 논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사업영역 및 업종에서의 적정한 portfolio의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의 비중, 도급사업과 개발사업, hardware와 software, 신규사업과 미래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제조업과 S/W사업의 조화가 요구되는데, 적정규모의 건설업관련 제조업 유지가 건설한 재무구조에 기여할 것이며, software사업(engineering, PM/CM)지향이 생존-지속-성장의 고리이며 건설한 재무구조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업전략과 정책의 명료성(transparency), 적중성(reliability) 및 동의성(consensus) 유지와 수주사업의 유지 및 확대가 전략의 핵심이 되며, 경쟁적 요소를 부각시켜서 핵심사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5.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및 생산시스템의 개선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및 생산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 건설산업에 관한

전략과 평가를 제도화, 정례화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구조 및 생산시스템의 구축, 관료적 요소의 제거, 산업과 시장경제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부실 건설업체의 정리, 발주처의 제묵하기, 건설사업을 위한 금융과 보험시스템의 재정립 또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건설산업구조의 5대 고려요소인 역동적 전략, 전문적 수행, 상업적 효과, 학구적 참여, 관료적 영향 등의 요소별 구성과 상호 연계성, 그리고 시대적 요청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를 동원하고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실현하는 시스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건설생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건설인의 품위와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건설산업의 순기능을 강조해 국가 기술개발체계의 정립과 국내·해외의 건설시장 변화에 맞추어 필요한 지식을 배양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또한 턴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의 혁신, 글로벌 시장동향에 적응력 강화, 그리고 건설산업의 위상회복을 위한 비도덕 관행과 역기능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즉, 제거요소로는 천민자본주의적 인식, 정치성과 관료성, 환경파괴, 부실시공, 부패고리 등의 역기능 요소이며 제고요소로는 글로벌성, 사업성(전문, 경영, 기술), 건설수행과 건설제품에 대한 가치 등을 들 수 있다.

6. 글로벌화

글로벌화(globalization of industries)은 제 3의 물결로서 경영환경과 시장구조의 복잡성, 불확실성(discrete)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디지털 혁명(digital revolution)은 기술혁신과 발전, 신속성의

증대, 연계성의 확대, 글로벌네트워크화를 가져왔고 지식경영자(지식+정보+serendipity)의 출현, 최고경영자의 역할 변화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따라서 우리의 건설산업은 역동적 경영, 고객지향, 기술과 경영의 조화를 통한 시장지향(market capitalization imperative), 그리고 가치와 효과지향의 경영, 신뢰와 평판을 중시하는 경영, 호혜적 협력을 통한 경영, 글로벌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환경보존, 국제표준화 등 건설산업에 관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공학도와 기술자는 탄탄한 엔지니어링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코드와 자동화시스템, 상황인식 속도 및 상황적응에 강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한다면, 밝은 건설산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998년도 건설업 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1999.
- dart.fss.or.kr, 금융감독원
- 2000년 3월기(1999년도) 주요건설회사 결산분석,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00. 06.27.
- A STRATEGIC RESPONSE TO A CHANGING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MARKET, Fred Moavenzadeh, '89.